

가 단일면허증 소지자와 동거자에 비해 높았다.

직무만족도는 역할스트레스, 소진경험정도에, 동거여부, 연령, 종교 그리고 종사에 정기간으로 32.5%를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건진료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보건진료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역할스트레스를 줄여 소진경험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진료원은 미혼자보다는 기혼자를 기혼자 중에서는 가족과 동거 할 수 있는 자를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자를 선발하는 것이 직무만족도를 높여 보건진료원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보건진료원의 직무만족과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복음간호전문대학 제3집 pp. 39~51, 1985.

이 지 현

보건진료원이 갖는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와 역할갈등 정도와의 관계 및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74명을 대상으로 1985년 5월 2일부터 30일 까지 4주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로는 Slavitt 등이 개발한 도구를 보건진료원직에 맞게 수정보완한 직무만족 측정도구와 Kahn 이론을 근거로 서가 개발한 역할갈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백분율, 피어슨 상관관계, 변량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설인 “보건진료원의 직무만족도와 소진경험 정도간에는 역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r = -0.927$, $P < .05$ 로 기각되었다.

2)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3.55점, 역할갈등정도는 3.3점을 나타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제 변수중 동거여부만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F = 2.8$, $P < .05$)

일반적 특성과 역할갈등과의 관계에선 제 변수중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지 못하였다.

다른 제 변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